



미국의 경영건전성 실사 결과 및 향후 전망

지난 4월 24일 미국의 19개 대형은행들에 대한 경영건전성 실사 결과 통보시 연준리는 자기자본으로 영업권이나 우선주를 배제하고 보통주만을 인정하는 유형보통주자본(Tangible Common Equity) 비율을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적용함. 향후 건전은행과 부실징후은행 간의 경영전략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요구될 전망이다.

- 지난 4월 24일 미국 재무부와 연준리 등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종합대책 가운데 자본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19개 대형은행들(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실시해 온 경영건전성 실사(Stress Test) 결과에 대한 개별통보를 완료함.
 - 당초 5월 4일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은행별 평가방식 및 결과에 대한 이견 표출로 인해 조율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단 5월 7일 뉴욕증시 폐장 이후로 공표를 연기하기로 함.
- 상기 경영건전성 실사는 GDP성장률, 실업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대한 특정 경기상황의 시나리오하에서 자산상태, 수익성, 자기자본,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형은행들을 건전은행과 부실징후은행, 부실은행 등으로 분류함(〈주간금융브리프(제18권 9호)〉 참조).
 - 통상적으로 미국 은행들은 대출처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회수불능위험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실사는 현 시점에서의 대출건전성이 아니라 향후 2년 이후의 경기시나리오에 따라 대출 등 보유자산의 손실가능성을 미리 산정하여 사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 내지 대손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자본 확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엄격한 회계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연준리는 상기 결과통보에서 19개 실사대상 모두 부실은행 수준은 아니나, 향후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인해 대출감소 등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Citigroup,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일부 대형은행들에 대해 사전적인 대비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서두르도록 권고함.
 - 단순히 경영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초체력 유지에 그치기보다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출확대 등 정상적인 신용공급기능 제공을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무체력을 갖춰줄 것을 요구함.
 - 특히 올해 1/4분기 결산에서 JP Morgan Chase나 Bank of America 등 상위 6개 은



행 가운데 Morgan Stanley를 제외하고 5개 은행이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시가회계 적용 완화 및 부채 평가의 등 특수요인 반영으로 인해 수익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음.

- 게다가 주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 소비자 · 상업용부동산 등과 관련된 대출채권 연체가 지속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수익 제고나 자본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표〉 실사 대상은행들의 총자산 순위 및 자본수준 현황

순위	은행명	총자산(억 달러)	기본자기자본(%)	유형보통주자본(%)
①	JP Morgan Chase	20,791	11.30	4.19
②	Bank of America	25,191	10.09	3.13
③	Citigroup	18,225	11.80	1.40
④	Wells Fargo	12,858	8.28	3.28
⑤	Goldman Sachs	9,250	13.70	4.50
⑥	Morgan Stanley	7,790	16.40	4.30
⑦	MetLife	4,914	-	-
⑧	PNC Financial Service	2,860	10.20	3.30
⑨	US Bancorp	2,636	10.09	3.70
⑩	Capital One Financial	2,198	11.40	4.80
⑪	Bank of NY Mellon	2,034	13.80	4.20
⑫	GMAC	1,795	10.6	7.30
⑬	SunTrust	1,791	11.00	5.82
⑭	State Street	1,420	19.13	5.87
⑮	BB&T	1,434	12.10	5.70
⑯	Regions Financial	1,420	10.37	5.42
⑰	American Express	1,210	13.80	7.30
⑱	Fifth Third Bancorp	1,197	10.93	4.23
⑲	Keycorp	1,038	11.16	6.06

주 : 기본자기자본(Tier 1) 자료 : 각 은행 올해 1/4분기 결산보고서

- 연준리는 영업권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이나 우선주를 배제하고 보통주만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유형보통주자본(Tangible Common Equity) 비율을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적용하여 동 비율이 4%를 하회하는 경우 부실징후은행으로 간주하고, 여타 재무상태 등도 감안하여 자본확충을 요구할 방침임.

- 이에 따라 19개 은행 가운데 Citigroup,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3개 은행을 포함하여 10개 내외의 은행들이 민간자금 조달(유상증자 · 사업이나 자산 매각 등)이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등의 형태로 유형보통주자본 강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미국 은행 업계에서 부실징후은행들은 재무부의 자본투입이나 연방예금보험공사 보증의 금융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양호한 은행들은 적극적인 민간자금 조달 및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착수하는 등 경영전략 차별화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물경기나 주택시장 회복 여부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전개 및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강화가 요구됨.
-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구축되어 있는 정책들의 일관된 집행과 더불어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성 내지 신용흐름 등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기준제시가 요구될 전망이다. **KIF**